

믿음 지혜 실천	<h1>BUDDHANARA</h1> <p>부다나라 (불국사)</p>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추석기도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부다나라(불국사) 후원회 - (불국회)

- 한국에서 “미국 부다나라 후원회를 위한 봉사활동”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들의 연락은 기다립니다. 미국 부다나라 나 한국 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ourth Tuesday of the Month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00 PM - 10:00 PM

이달의 범구경

남의 허물 보기 쉽고,
 자기허물 감추기 어렵네.
 남의 허물 바람에 왕겨 날리듯 하고,
 자기허물
 교활한 도박사가 주사위 감추듯 하네.

It is easy to see the faults of others, but
 difficult to see one's own faults. One shows
 the faults of others like chaff winnowed in the
 wind, but one conceals one's own faults as a
 cunning gambler conceals his dic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2011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간화선 수행 원리와 구조 분석” 의미

동국대 중학연구소, 제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서양의 간화선 연구자들이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하기 한 자리에 모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학연구소(소장 종호스님)가 주최한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 주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화선 수행의 역동적 원동력을 탐구하는 담론의 장이었다.

지난해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가 간화선의 등장에 대한 배경과 전개, 수행에 대해 소개한 자리였다면, 올해 학술대회는 본격적으로 간화선이 어떠한 원리로 이뤄지는지 학술적 접근을 시도한 자리였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 피터 그레고리 미국 스미스대학 교수, 미리암 레버링 미국 테네시대학 교수, 마티엔상 중국 무한대학 교수 등 국내외 석학 15명이 참석해 학술대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풍성한 논의를 펼쳤다.

제가 불자들, 일반인 등 사부대중 500여 명도 대회장을 가득 메우며 한국불교의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수행에 목말라있는 불자들의 열기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었다.

중학연구소장 종호스님은 대회를 통해 “지난해 학술대회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간화선의 수행 원리와 구조를 살피어 간화선의 역동적 원동력을 탐구하고자 한다”며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간화선을 실감하고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간화선의 세계화와 체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간화선 학술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련스님은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간화선의 학문화와 대중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시간이자 불교학의 메카가 되고자 하는 동국대의 의지가 투영된 자리”라고 강조했다며, 김희옥 동국대 총장 역시 “한국 간화선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시작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안국선원장, 불교신문 사장)이 열었다. 본격적인 논문 발표에 앞서 수불스님은 ‘간화선의 실체와 세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대회에 앞서 학자들의 간화선 체험을 지도한 수불스님은 이날 강연을 통해 간화선 수행의 의의와 수행 방법, 선지식의 역할,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불스님은 다가오는 시대를 ‘선의 르네상스’로 규정하고 수행과 명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불교계가 전승, 보존해 온 정신문화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수불스님은 “선불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인류를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정신적 혁명을 불러일으켰으며 간화선은 부처님이나 신을 무조건 믿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이 땅에서 고스란히 보존해온 간화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정신문화”라고 말했다.

동국대 교수 혜원스님은 당대선에서 송대선으로 이어지는 선의 흐름을 살핀 뒤, 대혜종고 스님의 간화선 형식이 어떻게 정식화되고 제도화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혜원스님은 ‘당대선에서 송대선으로의 유동적 연변의 과정에서 나타난 선사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마조이후 대혜까지 약 4세기를 걸쳐 중국선은 다양하게 변화 응수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선사상은 기성의 선법에 회의와 폐단을 계기로 반향적으로 보완 쇄신한 선법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혜원스님은 대혜스님이 ‘공안, 의단, 대오’의 단계를 거치며 간화선을 제도화, 규격화한 것은 “당-송대 선사상의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는 간화선 수행에서 중요한 동력이 되는 ‘의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간화선 수행에서 강조되는 의정(疑情)은 선 수행을 진전시키는 원동력으로 간주되며

인도불교에서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주된 동력으로 전환됐다”며 “고봉원료 스님은 의심에 대한 원오스님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주요한 힘으로 다시금 착상해냈다”고 밝혔다.

이러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간화선에 대한 고봉스님의 기여는 혁신적 사유에서 비롯됐다기보다 다른 선사들의 사유를 그가 명확하게 설명한 사실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간화선의 주요 요소를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의 삼요(三要)라는 용어로 체계화한 점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고봉스님의 설명이 가진 가장 영향력이 있는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식 목포대 교수는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려말 ‘여말삼사(麗末三師)’의 사상과 여말삼사가 불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연식 교수는 간화선 전통의 확립 배경을 고려 공민왕의 정치운영으로 분석한 뒤 “새로운 정치, 사회적 흐름을 만들고자 했던 공민왕은 태고보우, 나옹혜근, 백운경한 등 간화선사들을 적극 후원했으며 이로 인해 간화선이 불교계의 정통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진스님(동국대), 피터 그레고리 교수(미국 스미스대), 미리암 레버링 교수(미국 테네시대), 모턴 숄터 교수(미국 아이오와대), 마 티엔상 교수(중국 무한대), 황 샤니엔 교수(중국 사회과학원), 그리피스 포크 교수(미국 사라로랜스대), 나카지마 시로 교수(일본 하나조노대), 존 조르겐슨 전 교수(미국 그리피스대), 최성렬 교수(한림대), 박해당 교수(한림대),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등도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에 이어 국내외 불교학자들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충주 석종사, 문경 봉암사, 대구 동화사, 김천 직지사 등을 순례하고 혜국스님, 적명스님, 진제스님과 간화선 수행을 주제로 한 대담을 진행했다.

주인으로 살아가기

수행자는 탐심 없어야 공경받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많은 비구들이 코살라의 산기슭 숲 속에 있었다. 그런데 비구들은 마음이 들떠있고, 자만심으로 가득하고, 허영심으로 들떠있고, 시끄럽고, 거친 말을 하고, 조심성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감각기관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때 보름날의 포살에 하늘 사람 잔뚜(실제의 존재가 아니라 비구들을 경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등장시켜 꾸짖는다)가 비구들에게 다가와서 계송으로 말했다.

“예전에 붓다의 훌륭한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았네. 바라는 마음 없이 음식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거처를 구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알아 괴로움의 소멸을 이뤘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마을의 촌장처럼,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고, 먹고 또 먹고 드러눕고, 다른 이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네. 나는 승가에 공손히 합장하고, 여기 있는 일부의 사람에게 말하네. 이들은 돌보는 이 없이 버림받고, 죽은 시체처럼 버려진다네. 나는 게으른 이에게는 충고하지만, 부지런한 이에게는 공손히 예경 드리네.” <쌍웃다 니까야>

이 장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존경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수행자가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을 받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집착하고 탐욕 부리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시체처럼 버려질 거라 했다.

인간의 성취동기는 여러가지로 자극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칭찬’이었다.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가 그중 하나인데, 교육심리학에서 심리적 행동의 하나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하며, 교사 기대효과, 실험자효과라고도 한다.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는 스스로 사랑에 빠져들자,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고는 함께 살게 해준 것에서 유래한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L. 데시가 여기에 의문을 갖고 25년에 걸친 심리학 실험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자기 결정성 이론’을 내놓았다. 누구에게나 칭찬을 하면 점점 칭찬 받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함정이 있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행동관리가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때 동기부여가 잘 되고, 최고로 몰입하며,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마음의 작동법’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이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몰입(flow)’의 효과를 낳는다.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이 이때 열린다. 세상에 완성이나 끝은 없다. 어느 단계에 올라선 순간 이미 다른 차원이 보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금까지 알았던 것 이상의 무엇이 항상 펼쳐지는 것이다. “역지로

웃는 웃음은 즐겁지 않고, 억지로 우는 울음은 슬프지 않다”고 했다. 승단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자유의지를 신뢰하는 종교의 교단이기 때문이다.

[불교신문 에서 발췌]

그거였어 바로 그거였어

꽤 똑똑한데다 왕족 출신이고 모든 면에서 싯달타에 버금가는, 스펙이 빵빵한 인재가 실패한 성불의 자리를 우둔한 출라반타카는 어떻게 성공하였을까요?

친형인 마하반타카에게 내쫓겨 오갈 데 없는 출라반타카를 부처님이 불러들인 일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걸레를 손에 쥐고 먼지를 닦아내기!

출라반타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출라반타카는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는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 현명하고 덕망 높은 수행자들의 공동체에서 자신이 할 일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닦고 또 닦았을 테지요.

그는 이 걸레질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바랐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저 그곳에 살 수 있어서 좋았고, 친형과 헤어지지 않아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 행복한 마음이 그를 걸레질에 정성을 들이게 하였을 테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닥을 닦고 스님들의 신발을 닦다가 어느 날 그는 문득 걸레를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아하! 그거였어? 바로 그거였어?”

출라반타카의 깨달음의 경지를 증생인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게 궁금하면 지금부터 출라반타카 만큼 걸레질에 매진할 일입니다.

“난 싫어! 한번뿐인 내 인생 걸레질하다 끝낼 순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고,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어떤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단, 출라반타카가 걸레질할 때의 정성만큼 자신의 일에 애정과 관심과 혼신의 힘을 담아야겠지요.

아무튼 출라반타카는 깨달음의 자리(아라한)에 앉았습니다. 그의 우둔함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웃었지만 그는 부처님의 초대를 받아 공양청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걸레질은 좀 뻘하다 싶으면, 미국의 등반가 마크 웰먼의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마크 웰먼은 22살 때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0미터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암벽 엘 카피탕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안고 7년. 그는 두 팔로만 암벽을 오르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정복에 나선 날, 마크는 친구가 암벽에 걸어준 로프를 잡고 위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15센티미터씩. 더도 말고 그렇게 한번에 15센티미터씩 올라간 그는 9일 동안 7000번 로프를 당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7월18일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아도 계속 15센티미터씩만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마크 웰먼은 ‘1000미터 암벽등반에 성공한 장애인’이기보다는 ‘한 번에 15센티미터씩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 15센티미터가 그를 1000미터 정상에 올려준 것입니다.

시내 대형서점에 가보면 장애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 태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부러운 사람들은 열심히 책을 사서 읽어대지만, 글썽요, 걸레질에 희열을 느낄 자신이 없다면, 하루에 15센티미터씩 7000번 로프를 잡아당길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책값만 허비할 뿐입니다.

붓다의 지위와 영광만이 눈에 보인 데바닷타처럼, 무턱대고 독사를 품에 안은 남자처럼 남이 이룬 성공에만 마음이 흔들리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이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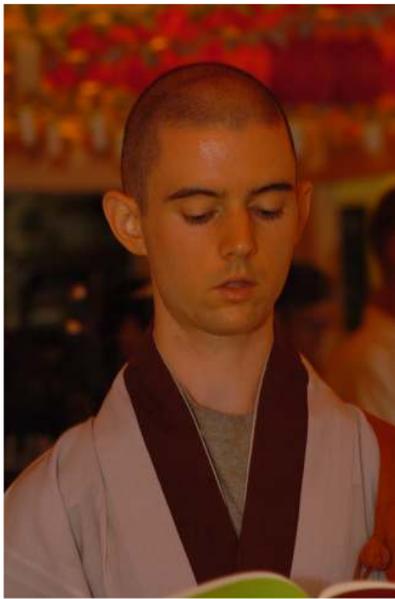
Welcome Back Home 경본스님



환영 기도



Projector를 이용한 송광사에서의 수행담 발표



경본스님

Welcome Back Home 경본스님

부다나라 주지 연암 선각스님

오늘은 미국 부다나라(불국사) 사찰에서 "Welcome Back Home 경본스님" 환영 법회가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현재 송광사 강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경본스님은 스님이 되기 전부터 참선법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불교와 교리를 공부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위해 3년 전에 송광사로 출가를 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란 경본스님이 한국 전통사찰로 출가시키는 데에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한국불교를 몸에 익히려던 미국 보다는 한국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강원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강원방학을 맞이하여 출가 사찰을 잠시 찾은 예전의 죠셉이 아닌, 가사를 수한 경본스님으로 부다나라 신도님들과 출가이후에 오늘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다. 법회는 경본스님이 송광사에서의 수행과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질문도 주고 받았다. 법회 참석은 한국교민들 보다는 현지 미국인들이 두 배 이상이 많은 관계로 모든 법회는 영어로 진행이 되었다. Projector를 사용해서 송광사에서의 하루의 일과 및 송광사의 사계 등을 설명을 덧붙여서 진행하며 이해를 도왔다.

송광사에서 큰 스승들과 도반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과 좋은 환경과 전통이 살아있는 송광사에서 수행하게 된 것을 거듭 감사해하고 또한 강조해서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자신들도 송광사에 꼭 가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불자 중에는 자신도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심공스티브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심공거사는 시간 나는 틈틈이 부다나라에서 잔디깎기, 차량봉사, 법회준비 등 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두 번있는 정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물론 한국어로 하는 예불문도 열심히 익히고 있다. 부다나라의 방침은 화요정진은 저녁 예불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화요 참선법회에 참석하는 미국인들은 6시 30분에 있는 예불에 우선 참석해야 한다.

경본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한국어로 예불문을 모두 외우고 송광사로 출가를 했고 한국음식중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했더니 어느 날 김치를 담갔다고 맛보라고 하며 성의를 표시 했었다.

현지 미국인들이 한국사찰에서 수행하다보면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역사, 언어도 습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자연히 한국을 좋아하게 되며 기회를 만들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사찰에서 수행도 하고 싶어 하게 된다.

미국에 진출한 다른 나라불교에 비해서 한국불교는 열세에 처해있다. 미국에서 발행된 대부분은 일본불교나 티벳불교 중심으로 썩어진 서적 들이고 요즘에는 미국인들이 쓰는 책들이 많이 발행된다. 부다나라 도서관에도 영문서적들이 비치되어 신도들에게 대출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불교 서적들은 몇 권 되지 않는다. 그중에는 한국큰스님들 법어집중에서 영어로 번역된 책 중에는 중국 선사스님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썩여있다보니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미국인들은 책을 읽은 후에 “조주선사”가 한국 큰스님 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중국스님이라 대답하면 “많은 큰스님들을 배출한 중국불교가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큰스님들이 법문에 인용할만한 역대 큰스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대 큰스님들을 많이 부각하고 하신 일들을 영문으로 많이 번역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마련한다면 포교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는 동양의 불교가 모두 들어와 있고,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은 각기 자신들이 소속된 나라의 불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다. 각 나라의 불교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다. 각각의 나라에서는 현지 사찰에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인적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스님 한 사람의 원력으로 사찰을 이끌어 가기에 힘은 너무도 부친다.

한국불교는 이웃나라 불교가 미국에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떻게 하던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려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하는데 우리의 강점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불자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애쓰는 만큼 한국에 계신 불자님들도 미국 포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현지 미국인 신도가 단시간에 구름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출가자가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미국인 스님이 한국에서 수행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포교를 할 때에 비로소 미국땅에 한국불교가 뿌리를 내려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여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미국 포교 1세대인 나는 앞으로 수행하고 미국땅으로 돌아올 스님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포교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 생각한다.

-BBS불교방송발행

9월호 판판뉴스 :선각스님-

우란분절 기도

칠월 보름 백중절 환한 달빛 속에
목련존자 지극한 효심 따라 천도의 정성 올리오니
먼저 가신 조상님 인로왕 보살님 따라
정도에 왕생하여 진정한 열반의 법열을 누리소서.

육도 윤회 중생들과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이여,
탐, 진, 치 삼독의 어둠 벗어나
한 가닥 불심을 회복하소서.
해탈의 원적산을 어서 속히 오르소서

무명 세월 속에 한없이 지은 중생의 죄업을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지옥, 아귀, 축생의 가엾은 죄보 중생들
 우란분절에 올리는 저희의 작은 정성
 은 법계에 두루 회향하오니,
 악한 세상 벗어나
 감로의 청량 법문 모두 얻게 하소서.
 무간 지옥에도 연꽃이 피어올라지이다.

-2011년 백중 천도법회 동참자 명단-

1. 망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비구니 연암 선각 복위)
2.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애흔고흔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비구니 연암 선각 복위)
3. 망 시부 남편후인 문해경 영가, 망 시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행효녀 무량화 문봉순 복위)
4. 망 부 남편후인 흥법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성훈 복위)
5. 망부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망모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행효녀 김재수 복위)
6. 망 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행효녀 김동희 복위)
7. 망 풍양조씨 일문권속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조남국 복위)
8. 망 풍양조씨 며느리 일체 영가 (행효녀 현심행 김설아 복위)
9. 망 시조부 Charles G. Mesko, 망 시조모 Anna E. Mesko, 망 시부 James Joseph Miller, 망 시모 Judith Ann Miller, 망 Mary Ann Mesko (행효녀 여래성 김선영 복위)
10. 망 선망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Debra Tak 복위)
11. 망 조모 밀양 유인 손덕연 영가 망 모 부산유인 진학미 영가 (행효녀 박수민 복위)
12. 망 삼촌 김녕후인 김흥규 영가, 망 친구 청주후인 한상각 영가 (행효자 무영 김동하 복위)
13. 망 모 안동유인 문수지 권효정 영가 (행효자 진공 권순철 복위)
14. 망 부 전주 후인 이귀남 영가, 망 모 남원 유인 양선산 영가, 망 언니 전주 유인 이호섭 영가 (행효녀 이호임 복위)
15. 망 부 밀양후인 박일선 영가, 망 형 밀양후인 박정신 영가, 망 동생 밀양후인 박정수 영가 (행효자 박정근 복위)
16. 망 조부 하양 후인 허 수근 영가, 망 조모 여 남석 영가, 망 부 하양 후인 허 봉선 영가, 망 빙부 경주후인 김 정호 영가, 망 매 하양유인 허 창분 영가 (행효자 허정석 (근일) 복위)
17. 망 부 진양후인 강석모 영가 (행효자 강용택 복위)
18. 망 부 원주후인 원용기 영가, 망 백모 달성유인 서병희 영가 (행효자 원상희 복위)
19. 망 부 김창환 영가, 망 모 김옥명월 영가 (행효녀 김근혜 복위)
20. 망 모 파주유인 영옥희 영가 (행효자 김현웅 복위)
21. 망조모 차옥녀 영가, 망부 김해후인 김원근 영가 (행효자 김현웅 복위)
22. 망 선망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선법 조승호 복위)
23. 망 한성이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도광 이찬혁 복위)
24. 망 선망 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김용오 복위)
25. 망 선망 부모 달성배씨 일체 영가 (행효자 배제현 복위)
26. 망 선망 부모 탐진 최씨 일체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27. 망 오빠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28. 망 밀양 박씨 영가 일동 (행효자 박래경 복위)
29. 망 김해 김씨 영가 일동 (행효녀 백련화 김효례 복위)

30. 망 창원 황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31. 망 밀양박씨 일체 인연 영가(행효녀 법왕자 박계영 복위)
32. 망 부 은진후인 송호창 영가 (행효자 고려 송보영 복위)
33. 망 부 진주후인 강대학 영가 (행효녀 극락심 강효정 복위)
34.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이범도 복위)
35.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조화숙 복위)
36. 망 부 고무래 후인 정득조 영가 (행효자 정순범 복위)
37. 망 나주정씨 정시홍 영가, 망 도광김씨 김성례 영가 (행효녀 정정순 복위)
38. 망백모 순흥안씨 영가, 망부 안동후인 권성집 영가, 망모 남원유인 윤유순 영가, 선망 인연영가 (행효자 성락 권혁만 복위)
39.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백유상 복위)
40. 망 부 문화후인 류근영 영가, 망 모 전주유인 이득천 영가 (행효녀 지우 류정아 복위)
41. 망 고흥유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유행석 복위)
42. 망 함평이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여여심 이경주 복위)
43. 망 조부 안동후인 김동균 영가, 망 조모 인동유인 장엄전 영가 (행효자 김태성 복위)
44. 망 조부 함평후인 이영범 영가, 망 조모 금성유인 나연례 영가 (행효녀 수정화 이금주 복위)
45. 망 여흥 민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관도 민정기 복위)
46. 망 진천 송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송혜숙 복위)
47. 망 조부 이씨후인 이택권 영가, 망 조모 박씨유인 박금덕 영가, 망 부 이씨후인 이인영 영가 (행효자 이동엽 복위)
48. 망 조부 Bert Abbott, 망 조모 Gracie Abbott (행효자 Steve Arnett 복위)
49. 망 조부 Walter Plessing 영가, 망 조부 Edward Kilper, 망 조모 Caroline Kilper (행효자 Greg Kilper 복위)
50. 망 모 해남유인 윤길임 영가, 망 외조모 고정순 영가, 망 외숙부 해남후인 윤길현 영가, 망 조부 인동후인 장진성 영가 (행효자 장경래 복위)
51. 망 조부 김해후인 김영태 영가 (행효자 김추윤 복위)
52. 망 형님 김해후인 김용민 영가 (행효자 김추윤 복위)
53. 망 부 청송심씨 심의학 영가, 망 장인 청주후인 한기일 영가, 망 모 재령유인 이정옥 영가, 망 수자 영가 (행효자 심용택 복위)
54. 망 수원백씨 일체인연 영가 (행효자 백승화 복위)
55. 망 시부 수원후인 백창순 영가, 망 밀양박씨 일체 영가 (행효녀 백귀옥 복위)
56. 망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최유진 복위) -이상 56영가위패 백중

극락왕생 발원 기도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볼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8월 7일 네째 주 일요일 10시 30분에 백중 천도 법회를 56위 영가 위패를 모시고 선망부모,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경건하고 여법하게 봉행 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참하신 영가 기도 동참금은 \$3,170불 및 과일시주 \$50.00이고, 과일 및 꽃값등 제반비용에 사용된 총 경비는 \$144.18 불 입니다. 경비를 제외한

\$3,075.82 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2010년11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천수경 마지막 편인 “총원과 총귀의 편인” “여래십대발원문 과 사홍서원”, “삼귀의”편 을 법문하고 천수경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1월 부터는 화엄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현행원품” 강의를 시작합니다. 9월 법회에 참석하시어 장장 1년여에 걸친 “천수경 대단원의 막을 함께 내리고 현대에 살고있는 우리를 돌아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둘째주 일요일에는 애틀랜타 법회가 있는 관계로 세인트루이스는 9월 18일 셋째주 일요일에 추석법회를 합니다. 이날 송편 만들기 체험도 함께 있습니다. 추석 쌀시주 받습니다.
- 애틀랜타 법회에서는 애틀랜타 사찰 창건 불사를 돕기위해 10월 1일 토요일 “그라지 세일” 행사를 합니다. 신도님들의 마음을 모으는 협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법회때 공지 하겠습니다.
- 10월 16일 셋째주에는 Eckert’s Farm에서 야외 법회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사과(부사)따기 체험을 하고 회장님 댁에서 모여서 다함께 점심공양을 합니다. 농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동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참석하셔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 하겠습니다.
- 8월 21일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에서 송광사로 출가한 경본스님을 위한 Welcome Back Home 경본스님” 환영법회를 한인불자및 현지 미국인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경본스님의 출가생활을 모두들 궁금해 해서 경본스님이 준비해 온 Projector와 설명을 곁들여서 송광사 강원에서 하루 일과 및 그동안의 생활상, 송광사에 관한 DVD상영 등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본스님은 약 10일간의 여름방학을 미국에서 지내고 8월 26일 한국으로 귀국한 후 바로 송광사 강원으로 복귀합니다. 2년 후에 강원을 졸업을 하니 그때 다시 만날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학업에 정진하시길 축원올리고,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2년 달력불사를 기다립니다. 조계종출판사에서 달력 400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을 합치면 제반비용이 약 \$1,000.00 정도가 소요 됩니다.

2011년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15번 Brandon Clem, 216번 Cody Clem.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 임인생 김대성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